
제52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12.20.~12.26.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19. 12. 20.	시청률	0.012

【총 평】

<여러분의 북마크> 제48회 방송은 '단박톡 2019 연말특집 백두산 여정기 2편, 중국 단둥 북중 접경지역에서 만난 북한 음식과 사람들'과 '북마크 TV, 최근 북한이 지정한 핫한 신토불이 특산 음식'편을 담았다.

'단박톡 2019 연말특집 백두산 여정기 2편'은 지난주 1편에 이은 특집 구성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남한청년들의 북한 음식 맛보기와 백두산여정 직전까지를 영상에 담았다. 북녘 땅을 바라보는 분단 70년의 아쉬움과 백두산에 오르는 감회를 북한 음식에 담아 속도감 있게 그려냈다.

특히, 북한 주민과 서로 손을 흔드는 장면이나 북한 식당 직원들과 서로 정을 나누는 장면 등은 애잔하게 연출이 되어 감동을 주기도 했다. 북마크TV에서는 원산의 조개밥을 소개했는데 보는 재미와 함께 북한의 수출 부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개밥을 개발하게 된 배경까지 설명을 더해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여러분의 북마크> 제45회에서 48회에 이르기까지 '단박톡' 기획으로 '남북음악 교류', '남북문화예술 교류', 접경지역에서 만난 북한 주민과 음식' 등을 소재로 한반도 화합과 평화, 통일을 모색해보는 시리즈를 마련한 점이 긍정적이었다. 특히 남북관계가 소원해진 국면에서 요긴한 기획이었다. 제48회에서는 47회 <단박톡 연말특집1; 북중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한반도 평화의 길>에 이어 연말특집 2편으로 <중국 단둥 북중 접경지역에서 만난 북한의 음식과 사람들의 모습>이 방송으로 소개됐다. 한해를 보내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성찰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획의 의미가 컸다.

북한의 최근접 지역과 북중 접경지역 식당에서 북한 사람과 음식을 만나는 구성이 시청자 관심을 유발했다. 신의주와 단둥 등에서 북한 주민의 일상이 보였고 손을 흔드는 북한 주민도 영상에 포착됐다. 단둥에 있는 평양고려식당에서의 평양냉면 맛보기도 특별한 이벤트였다.

단둥에 소재한 북한식당을 방문해 대통령과 평화사절단이 즐겼던 평양냉면을 즐겼다. 하지만 평양 옥류관의 냉면과는 조금 다르게 단둥 북한식당의 냉면은 중국 식재료, 그리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약간 변형된 편이고 대동강 맥주의 경우에도 맥주병에 표기된 번호에 따라 다양한 맛이 존재한다. 강원도 동해 원산시의 특산물인 조개를 활용한 새로운 음식으로 '원산 조개밥'이 인기다. 북한방송에서도 한국의 쿡방처럼 원산 조개밥 레시피를 내보내준다. 원산조개밥을 특산음식으로 특히 홍보하는 것은 원산-금강산 국제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지역 특산 음식으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대북제재 등으로 수출이 어려워 추진되는 국내 소비촉진의 일환이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19. 12. 21.	시청률	0.052

【총 평】

<우리 동네 개선문> 제12회 방송에서 다룬 소식은 주민이 '갈등' 직접 해결...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성과 사례와 민원 해결 돕는 전문서비스 '활발'이었다.

'민원 해결 돕는 전문서비스' 관련 정보는 개인이 처리하기 쉽지 않은 행정절차와 민원 해결을 돕는 전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다. 행정 절차에 불필요한 시간을 제거해 주고 비용 낭비를 줄이는 사례를 취재하여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지자체 주민들 스스로 생활 속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마을 소통방으로 2015년 문을 연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공동체 협력 모델이다. 토론과 조율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성공 사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주민위한 민원 해결 전문서비스'와 '숲 가꾸기 패트롤' 사업은 가설건축물 설치나 시설 전에 필요한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도면 작성 지원을 해주는 무료 민원 사업과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목 제거 등 전문적인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 전북 사례를 소개하였다.

'주민위한 민원 해결 전문서비스' 편은 전북 무주군청에서 2019년 중순부터 시작한 정책으로 고령자들에게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 무료 지원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바람직한 공무원의 역할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구성 및 내용】

■ 주민이 '갈등' 직접 해결...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와 소통방은 주민들이 행정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해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는지가 모두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법이나 제도가 아닌 대화로 분쟁과 민원을 해결한 사례로, 소통의 힘을 신뢰하게 한 점이 세밀 시점과도 잘 어울렸다. 특히,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에 대해 마을공동체 토론과 조율 등의 주민 자치를 통해서 자치 실현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흐뭇한 소식이었다.

■ 민원 해결 돕는 전문서비스 '활발', 숲 가꾸기 패트롤 사업

전북 무주군청에서 시행중인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로 인해 불편함을 덜어낸 주민들의 반응을 강조하면서 행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무주군청이 시행 중인 가설건축물 신고 도면 작성 지원 서비스를 소개했는데 가설건축물 신고 과정이 먼저 상세히 소개가 되어 그 동안 얼마나 불편하고 번거로웠는지 초반에 잘 강조가 됐다. 이후 군청에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도맡아서 해결해 주었다는 식으로 전개가 되어 서비스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했다. 여기서도 경제적 효과가 바로 수치로 표기되어 더욱 효과성을 입증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19. 12. 22.	시청률	0.010

【총 평】

이웃사촌이 되어야 할 이웃사이가 원수가 돼버렸다. 바로 층간 소음 때문이다. 울들어 층간 소음 분쟁으로 목숨을 잃은 주민이 8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PD리포트 이슈본> 제279회에서 긴급기획으로 마련한 <아파트 층간소음을 막아라!>아이템이 시의성있고 적절한 이유이다.

층간소음으로 빚어지는 이웃간 갈등-문제점-원인-심각한 사례-국토부 대책 등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전개한 구성이 돋보였다. 특히 전문가를 통한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솔루션을 찾는 탐사보도 형태의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다. 또한, 층간소음의 문제가 주민 간의 갈등보다는 시공과정과 인정기관의 감독 부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제기한 부분이 탁월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인용과 국토부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신설 등 대책 마련 내용 소개가 정책알림이 역할을 하여 시청자 만족도를 제고했다.

【구성 및 내용】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이 심각하다. <PD리포트 이슈본>에서 긴급기획으로 마련한 <아파트 층간소음을 막아라!>에서 그 실태와 문제점, 원인, 솔루션을 찾는 소재가 시의성있고 적절했다.

■ 경기도 수원시의 층간소음 사례

사례자의 경우 윗집으로부터의 소음은 주로 늦은 밤 10시부터 심해지는데 걷는 소리 휴대폰진동소리 등이 주로 들린다. 믹서기 소리에 기겁을 한 적도 있다. 윗집에 항의도 했지만 윗집에서는 일반적인 소음이라고 한다.

■ 부산 해운대구 사례

이사를 온 다음 날부터 아랫집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후 바닥매트를 깔고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항의가 이어졌다. 특히 오후 7시, 오점 9시 등 밤낮없이 연락이 온다.

■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의 중심은 바닥구조

아파트 바닥구조는 일반적으로 5겹으로 시공된다. 콘크리트 두께가 두꺼워지면 발걸음 등 중량충격음을 줄일 수 있다. 관련기준에 따르면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등 2가지 소음원에 대해 차단 성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 대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보완지침에 따르면 완충재 등 구성품 품질시험 및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로 한층 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국민기획 '과학특'		
방송일자	2019. 12. 22.	시청률	0.041

【총 평】

최근 <국민기획 과학특>의 흡인력있는 소재가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의료가 달라진다, 게놈혁명'(85회),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86회), '인수공통 바이러스, 정체는?'(87회), "건강을 위협하는 공기쓰레기, 미세먼지"(88회) 아이템은 실생활과 관련있는 것은 물론 인류의 생활을 이롭게 바꿔주는 최첨단 기술을 다룬 내용이어서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를 충실히 살렸다. 특히, 88회 '건강을 위협하는 공기쓰레기, 미세먼지'는 '삼한사미'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지독한 불청객이 된 미세먼지의 정체, 건강위험, 심각성, 대응 방법, 저감정책, 전망 등을 상세히 다뤄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정책방향, 전망 등을 다룬 것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구성 및 내용】

<국민기획 과학특> 제88회는 겨울철 잦아진 미세먼지를 집중 해부한 기획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미세먼지의 정체, 농작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대중교통과 미세먼지의 관계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노력, 미세먼지가 우리삶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과거의 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제시해 80년대 보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좋아졌다는 사실을 설명했는데 의외의 정보였고, 이에 대한 이유를 산업화·소득수준 향상과 관계가 있다고 자세히 설명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 되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 미세먼지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조명하고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저감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공감도를 높였다.

■ 미세먼지 유해성분과 구성

질소산화물 등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머물다가 배출되지만 탄화수소 계열의 매연은 좋지 않다.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 많은 날, 안구, 피부질환 우려도 있다.

■ 공기청정법 등 국내의 대책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점, 선, 면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점' 개념은 발전소 등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는 점을 잡아야 하는 것이며 '선'의 개념은 자동차 도로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면'의 개념은 세탁소, 축산농가 등 면으로 퍼져있는 요인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을 잡는 단계로 들어섰다.

■ 미세먼지는 언제 해결될까?

환경규제의 흐름, 산업의 흐름을 살펴보면 약 10~20년 후면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구온난화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19. 12. 22.	시청률	0.239

【총 평】

<KTV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제12회) 방송은 경남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지리산 오지마을의 행복학교’를 담음으로써, 남다른 교육관으로 귀농한 선생님들,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다뤘다. 사람과 사람의 소중한 관계를 가르치는 학교, 어른과 아이들 그리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 콘크리트 교실 바닥이 아닌 자연과 흙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사춘기 중학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기표현을 잘하는 남학생들의 얼굴 위로 ‘행복’이란 두 글자가 덧씌워져 시청하는 내내 흐뭇함을 자아냈다.

귀촌 5년차 김병삼(56세) 교장선생님은 “세련보다는 어색함과 거친 것을 기다리고 도와주는 교사 역할”을 언급하였는데 그의 귀농과 교육관이 잘 드러난 인터뷰였고, 오늘 주제의 핵심을 잘 정리한 가슴 뭉클한 한 줄 인터뷰였다.

【구성 및 내용】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귀농과 교육이 잘 어우러진 기획 구성이었다. 행복학교의 일상은 매일 아침마다 벌어지는 못 청소소년들의 일상인 것처럼 보이나 아침부터 식사를 해결하고 설거지까지 하는 아이들의 모습, 재래식 화장실 청소 작업을 생태 살리기로 인식하는 아이들과 선생님, 메리골드 잎을 따서 용돈 벌이 하는 아이들 모습, 김장 작업을 축제라고 표현하는 선생님의 모습 속에서 참교육을 발견하는 시간이자 진정한 소통 교육이었다. 과수원을 개발하여 학교를 세운 뜻있는 선생님들과 마을 주민의 협력은 아이들의 ‘행복학교’라는 작은 기적을 이뤘고, 이를 잘 보여준 방송이었다.

■ 산골 학교의 오전 풍경

학교 기숙사의 기상 풍경부터 아침 식사와 설거지, 휴식과 부엌토 작업 모습 등 아이들의 일과 중심으로 다루었다.

■ 교사들과 흙맘들의 이야기

귀촌을 선택한 교사들이 모여서 대안학교와 귀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 흙맘의 홈스테이로 이동하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저녁 식사 모습을 담아냈다.

■ 마을대표가 들려주는 마을에 관한 이야기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 마을로 내려오면서 마을 대표와 만나고 직접 메리골드를 수확해서 용돈을 버는 모습, 마을 점방의 풍경까지 함께 소개가 됐다.

【참고사항】

‘행복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비롯해 아이들이 배경과 사연 등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다른 측면에서의 속마음 인터뷰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19. 12. 24.	시청률	0.045

【총 평】

연말연초를 앞두고 소외계층의 힘든 겨울나기에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아이টে을 톱으로 배치해 이목을 끌었고 후원의 손길이 줄어 아쉬운 상황도 적절히 살려 관심도를 높였다. 서울시청 앞 광장 스케이트 개장 소식과 '프랑크푸르트 크리스마켓' 관련 취재는 세밑 분위기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아이টে이어서 좋았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외국의 이색적인 성탄절 풍경과 우리나라의 성탄절 분위기를 앞뒤로 구성해 서로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한국전쟁과 스웨덴사람들'은 한국과 스웨덴이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에 열린 전시행사라는 점에서 의미 있었고 다양한 인터뷰와 영상자료로 다채롭게 구성한 특징적인 리포트였다.

【구성 및 내용】

■ 사랑의 연탄 후원 줄어 소외계층 어려움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나기가 어려운 실태를 깊이감 있게 조명하고 소외 계층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푸는 이웃들의 선행을 현장감 있게 담아내 올림 있었다. 특히, 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사랑의 후원 연탄 물량이 줄어들고 고지대 달동네는 배달을 꺼려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무게감 있게 전달해 시사하는 바가 컸다.

■ 도심 겨울 낭만 가득, 서울시청 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스케이트장, 코엑스, 올림픽경기장에 링크가 설치되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노들섬 야외 스케이트장이 50년 만에 문을 열었다는 정보를 꼼꼼하게 소개했다.

■ <글로벌 리포트> 600년 전통, 프랑크푸르트 크리스마스 마켓

독일의 유명한 크리스마스 마켓 풍경을 소개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유럽만의 독특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해 흥미로웠다. 특히, 프랑크푸르트 크리스마스 장터에서 무료 공연을 40년 이어 온 프랑크푸르트 동포 합창단 '하모니 앙상블'의 우리 말 캐럴이 눈길을 끌었다.

■ 광장에서 들려주는 캐럴, 성탄 분위기 높여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이달 초부터 저작권과 상관없이 일부 캐럴송을 틀 수 있도록 해 오래간만에 거리에 울려 퍼진 캐럴송으로 성탄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전했다.

■ 야전병원으로 시작된 인연, 한국전쟁과 스웨덴 사람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스웨덴 의료진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당시 의사, 간호사, 환자의 생생한 목소리와 영상을 담아 재구성해 스웨덴 의료지원단의 활동을 제대로 알게 된 유익한 기회가 됐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19. 12. 24.	시청률	0.028

【총 평】

<특특 사이다 경제> 제194회 ‘주요 경제&이슈’는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를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보는 시간으로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예측 조사의 의미와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007년부터 2년 단위로 실시한 10년 주기의 인력수급 현황 조사가 주는 효과, 이를 바탕으로 한 2018년부터 2028년까지 6차 중장기 인력수급 예측(생산인력 경제활동인구 등의 변화로 인한 준비 등) 추진 배경은 무엇인지, 효율적인 인적 자료 활용을 위해 어떤 계획이 필요한 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구조조정, 민간 시설의 구조조정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 점, AI 같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를 개괄적으로 되짚어 보았다.

‘그 밖의 경제이슈’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한 포토레지스트 규제 완화(의미와 관련 일지, 한·일 회담 결과 추이 및 추가 진전될 부분),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 주요 내용,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3일간 1조원 경제효과 건강습관 예·적금 상품 출시 내용 등을 알아보았다. ‘정책 톡 돈이 톡’에서는 “만 12세 여아-12월까지 HPV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한 보건복지부 정책 정보를 제공하였다.

【구성 및 내용】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6차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계기로 인력수급 전망과 과제를 발 빠르게 짚어보는 기획은 적절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선제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획이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격년 간 10년 단위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2018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국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파생현상, 특히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의 추진 배경과 함께 향후 인력 공급 및 수요 전망,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 상세히 전달해 주었다.

산업별 취업수요 증감 실태, 신규 인력 수급 전망,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등 현안이 고루 다뤄져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현 상황 진단과 미래를 위한 처방이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뤄져 대응 방안을 제시한 점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경제&이슈>에서는 일본, 포토레지스트 규제 완화 의미,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 주요 내용 등이 다뤄지고,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경제효과, 건강습관 예·적금 상품출시 등 흡인력있는 아이템도 언급돼 관심도를 유발했다. 정책톡! 돈이톡에서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자궁경부백신 무료접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주었다.

프로그램	생방송 대한민국 2부		
방송일자	2019. 12. 26.	시청률	0.018

【총 평】

뉴스아이템은 시의적 중요성에 따라 편집이 잘 이뤄졌고, '한일정상회담'의 결과와 이후 무역규제와 관련한 해법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지를 다룬 '이슈분석'은 경우의 수를 따져 다각도로 분석해 유용한 전망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또, 도시 생활에 지친 청년들 위한 '삶기술학교'를 소개하고 정부가 청년들의 양질의 삶과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적절히 전달해 이목을 끌었고 아이템 선정이 돋보였다.

<경제&이슈>는 한일 정상회담이 우리경제와 수출규제에 미칠 영향력, 강제징용 문제 해결, 지소미아 종료 여부 등 다양한 분야를 밀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 향후 한일 양국 관계 개선 추이를 가늠하는데 유용했다.

【구성 및 내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뉴스편집이 효율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고 주로 경제이슈를 다루는 뉴스분석은 시청자가 전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잘 풀어나가고 있다.

■ <Live 스마트폰 현장!> 새로운 삶을 꿈꾸다! 삶기술학교

행정안전부가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 '삶기술학교'를 조성해 청년들이 한 달 동안 시골마을에 모여 살며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삶 기술'을 배우는 모습을 소개했다. 인생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 것 같아서 그 취지가 돋보인다. 특히,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가 꽤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정보성도 있었다. 청년들을 위한 비슷한 유형의 아이템들이 지속적으로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 <경제&이슈> 한일 수출규제 대화 본격화...상호 무역통상 회복 위한 해법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1년 3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복원되고 일본 수출규제 문제 등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될지 자세히 분석해 보았다. 상호 무역통상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자세히 살펴 향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 주요뉴스

<더More뉴스>를 포함해 문 대통령의 신디케이트 기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등의 뉴스를 전했다.

■ 월드 투데이

<월드투데이>는 오늘도 역시 계속되는 홍콩시위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의 긴장 태세, 칠레의 성탄절 화재 소식을 전했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19. 12. 26.	시청률	0.049

【총 평】

가을개편과 함께 방송을 시작한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는 KTV의 정체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음주운전, 산악사고, 지진, 해상사고에 이어 바다낚시, 교통안전, 방심이 부른 산불, 안전을 노리는 범죄에 이르기까지 ‘안전불감증’ 등 각종 사고의 원인과 솔루션을 추적함으로써 캠페인 효과가 탁월하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원 등의 노고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기획의도도 충실히 살리고 있다. 특히 위험한 현장에서 ‘자체제작’에 힘쓰고 있는 제작진의 올 한해 노고에도 찬사를 보낸다.

제13회는 연말특집으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활약상이 소개됐다. 2017년 4월에 창단된 특별경비단은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하기 위해 생명까지 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명감, 책임감,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대원들의 출동 태세와 중국어선 불법어업 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추격, 나포 등 신속히 대처하는 긴박한 상황이 묘사됐다. 경비대원들의 물샐틈없는 노고로 지난해 1538척의 불법어선을 퇴치해 516억원에 이르는 2100톤 가량의 어획물 남획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

【구성 및 내용】

오늘 방송은 이런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활약 및 업무에 대해 구성되었다. 우리나라 영해에서의 불법조업현황, 서해5도 해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 유래, 경비대원들의 훈련과 순찰, 불법조업단속 사례를 실감나게 담았다.

연말특집 ‘대한민국을 수호하라!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통해 어민들의 생계보호와 안전,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연말연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대원들의 노고와 활약상을 보여줌으로써 <현장출동 안전이 문제다> 기획의도를 생생히 살려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출동 태세 점검과 중국어선 불법어업 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추격, 나포 등 신속히 대처하는 상황이 묘사됐다. 불법어선의 증가, 이로 인한 어획량 감소, 어민의 어려움, 경비단의 불법어선 퇴치로 인한 어족자원 보호 등 사례가 구체적으로 다뤄져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현장에 출동해 추격하고 퇴치, 나포하는 상황이 리얼하게 구성돼 현장감과 몰입도를 높였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담은 인천해양경찰서, 서해5도 특별경비단 VCR영상을 보여줘 현장출동의 느낌을 리얼하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불법어선의 증가, 어획량 감소, 나포 실적 등을 그래픽으로 보여줘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중국 불법조업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국가 간, 정부 간 노력도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포함 해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